

‘죽은 악당’을 대하는 사회의 품격

광화문·뷰



김신영
국제부장

MIT 미디어랩의 스타급 소장 이토 준이치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2019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성년자 성추행범인 금융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몇 차례 어울리고 기부금을 받았다고 드러난 후였다. 그는 엡스타인의 성 착취 사실은 몰랐다면 “그 누구보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썼다. 엡스타인이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해가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4년이 흐른 지금, 엡스타인에 대한 미 사회의 단죄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학계·재계·금융계를 망라하는 수많은 인사가 그와 연루돼 그 만두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주에만 굵직한 뉴스가 최소 세 건 나왔다. 진보 학자 노엄 촘스키 MIT 교수, 리언 보츠타인 바드대 총장이 엡스타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이와 별도로 도이체방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7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성년 여성들에게 수상한 돈이 이체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죄를 키웠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이체방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등 시스템 개선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월가(街)의 거물 제이 미디언 JP 모건 회장도 비슷한 권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사회는 사후에도 집요하게 범죄의 책임을 파헤쳐 추궁한다. ‘죽었으니 됐다’고 여겨선 문제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공동체의 암묵적 합의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런 관행엔 ‘범죄자는 갓어도 피해자의 계속되는 삶은 지켜주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렸다. 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해 범죄를 막자는 취지도 있다.

다만 금융 사기(폰자)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또 다른 ‘죽은 악당’이다. 2008년 수감됐고 2021년 4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 미 법무부는 메이

5년 전 사망한 美 성추행자 연루자 조사 아직 진행 중 한국의 세상 뜬 성범죄자는 왜 찬미의 대상이어야 하나

도프의 재산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15년째 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만 역외 도피처에서 3억 7200만달러를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올해 초엔 그의 사악한 범죄를 해부한 다큐멘터리 ‘월가의 괴물’이 넷플릭스에서 나왔다. 감독 조 벨리저는 “규제 당국과 금융 전문가들이 ‘경고등’을 무시하면 재앙이 얼마나 크게 번지는지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일본에선 또 다른 망자(亡者)의 범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유명 연예 기획사 ‘자니스’ 창업자 자니 기타가와 미디언 JP 모건 회장도 비슷한 권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주에만 굵직한 뉴스가 최소 세 건 나왔다. 진보 학자 노엄 촘스키 MIT 교수, 리언 보츠타인 바드대 총장이 엡스타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이와 별도로 도이체방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7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성년 여성들에게 수상한 돈이 이체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죄를 키웠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이체방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등 시스템 개선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월가(街)의 거물 제이 미디언 JP 모건 회장도 비슷한 권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가 드러나면서 사장이 주초에 사과했다. 자니스 측은 가해자의 해명을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란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지만, “그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일본 의회는 미성년 성 추행을 방지할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에도 세상을 뜬 성범죄자가 있다. 서울시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성적으로 희롱했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202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그의 성희롱 사실과 서울시의 잘못된 대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다. 법원도 이를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가족과 지지자들은 3년째 피해자가 가짜라고 공격해왔고, 이제는 범죄자를 미화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 7월에 개봉한다고 한다.

엡스타인에게 연구비를 받았다가 2019년 사과문을 발표한 세스 로이드 MIT 기계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썼다.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엡스타인의 해명이 아니라 경찰 조사, 재판 결과, 언론 보도 등이 밝혀낸 사실을 더 집요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박원순 사건에 대한 ‘사실’은 수없이 많이 공개돼 있다. 인권위 홈페이지 검색창에 ‘서울시장 성희롱’ 검색만 해도 범죄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독해력이 떨어져서일까. 성범죄자를 찬미하겠다는 이들이 아직까지도 소란을 일으킨다. 이 사회의 구멍난 품격이 부끄럽다.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22] 미래는 이야기꾼들의 것이란다

The future belongs to storytellers

마치 영화계의 위기를 대변하는 듯 ‘바빌론’ ‘파벨만스’ 등 유난히 영화를 이야기하는 영화가 최근 많이 개봉하고 있다. 영화계의 문체나 비하를 이야기하거나 영화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고백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최근 개봉했던 ‘라스트 필름쇼(Last Film Show·2023·사진)’는 그중에서도 영화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영화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비전을 깨우며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킨다.(Movies touch our hearts and awaken our vision, and change the way we see things.)”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말이다. 꼭

‘라스트 필름쇼’의 주인공 사메이(바빈 라바리 분)가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다.

인도 시골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영화의 마력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새롭고 생생한 꿈을 얘기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바람을 일축한다. “브라만이 그런 천한 일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니?(Have you ever heard of a Brahmin doing such a shameful job?)” 몰락한 브라만 집안이지만 자긍심만큼은 여전히 지체 높은 브라만이다. 아버지의 눈에 영화계는 추잡한 곳이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메이는 우연히 시내 극장의 영사 기사 파잘과 친해지고 도시락을 주는 대가로 영사실에서 공짜로 영화를 보며 영화 이야기를 듣는다. 눈이 초롱초롱한 사메이에게 파잘이 말한다. “미래는 이야기꾼들의 것이란다.(The future belongs to storytellers.)” 스크린을 타고 흐르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형상화하는 빛에 매료된 사메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이끌리듯 걸어간다.

영화 번역가

社 說

민노총 불법 시위에 ‘불침번’, 사진이 보여준 한심한 경찰 실태

어제 조선일보 8면 사진은 불법 앞에 무기력한 경찰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16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인도에 돛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노숙 시위를 벌인 민노총 건설노조원들 앞에 경찰이 줄지어 선 모습이다. “통행로 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마치 경찰이 노조원들 노숙에 불침번을 서는 듯했다. 경찰이 이날 오후 5시 이후의 집회는 불허했기 때문에 밤샘 노숙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그런데 경찰이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불법이 경찰의 완전 방관 아래 벌어지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 중엔 없을 것이다.

밤샘 노숙 시위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벌인 행태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술판을 벌이고 쓰레기를 투기하고 노상 방뇨까지 했다. 모두 법규 위반이다. 그러나 어느 경찰관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미국은 집회 참가자들이 미리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현장의 경찰 지시에 불복하면 강력하게 진압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한다. 이 때문에 미국 시위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시위 가이드라인이 “경찰 지시에 따르라”이다. 반면 민노총은 16일 경찰의 해산 명령에 코웃음을 쳤다. 경찰이 법을 집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찰이 이 지경까지 된 데는 문재인 정권이 경찰 공권력을 무력화한 영향이 크다. 문 정부가 만든 경찰개혁위원회는 ‘사

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내용을 권고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죄가 확정된 시위대를 정부가 연이어 사면하고 불법 시위를 막은 경찰은 징계와 처벌을 받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시위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시위대에 청구했던 구상금 34억원도 포기했다. 불법이 인정받고 법 집행이 처벌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경찰관이 불법 시위를 막겠다고 나서겠나. 윤석열 정부는 불법 시위 엄단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달라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다. 경찰은 여전히 불법 시위대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법 집행을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법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밖에 없다. 작년 말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을 철회한 것도 정부가 엄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 방해 행위를 신속하게 사법 처리하는 등 원칙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민노총 불법 집회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불법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경찰도 국민을 믿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반발이 있을 것이고, 각종 사고를 유도하려는 시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양보하면 악순환만 낄 뿐이다. 법은 최후의 보루이고, 최후의 보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이 판결은 속전속결, 저 재판은 질질 끌기, 재판인가 정치인가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민회 힘 김선교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다. 법 위반엔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 판결은 2심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속전속결이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 1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건도 맡고 있다.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가짜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작년 5월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대법원은 1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해당 사건은 최 의원이 속했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일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닌데도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 11개월, 2심 판결까지 1년 4개월을 끌었다. 결과는 1·2심 모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같았다.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 1부

로 넘어와 1년을 넘기고 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끌면 최 의원은 임기 4년을 다 채울 수 있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정치를 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변호부심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다. 이런 속도라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년 총선 때까지 의원직 유지가 확실시된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3년 2개월 걸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정의를 지켜야 할 법원이 부정에 가담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됐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제도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원자력!’ 다큐 만든 올리버 스톤의 충고 “빨리 잠에서 깨라”

아카데미 감독상을 두 차례 수상한 미국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은 아시아리더십포럼에서 2016년 국내 개봉된 ‘판도라’ 영화를 거론하며 “환경운동가와 일부 과학공상 영화 때문에 원전에 대한 과장된 위험이 퍼졌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빨리 잠에서 깨라”고 했다. 스톤 감독은 “재생에너지는 세계 전력 소비량의 상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기후 위기의 분명한 해결책은 원자력”이라고 했다. 스톤은 반전(反戰) 등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을 만들어온 사람으로 최근 ‘지금 원자력!’이란 다큐 영화를 제작했다. ‘지금 원자력!’은 스웨덴이 1970년 이후 20년 사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50%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반 비용으로 40% 전력을 공급해준 8기의 원전 덕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에 기초한 ‘지금 원자력!’과 정반대로 ‘판도라’는 터무니

없는 스토리다. 영터리 내용의 영화는 흔하다.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탈원전이라는 국가적 자해를 시작한 것이다. 영터리가 국가 정책이 된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때문인가와 원전 주변 주민들은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자 원전 단지 내로 대피했다. 원전 단지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방사능에 피폭돼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유엔 산하 기구의 28국 전문가들이 2년 조사한 결과 사고 현장에 들어가 작업한 2만 5000명의 방사능 평균 피폭량은 CT 한 장 찍을 때 노출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허무맹랑한 연설을 했다. 사실무근이란 것이 즉각 밝혀졌지만 정정도 하지 않고 뭉뚱했다. 스톤 감독이 “빨리 잠에서 깨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동영상 시청

'내로남국' 코인 게이트... 세탁한 돈은 어디로? 이재명 역할은?

뉴데일리 newdaily.co.kr

전문가들,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증언...그들 배척하면 진실 기반 사회 무너져 '계·정 복합체'(게임업·정치권 유착)가 활약한건가?

1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는가?

위정현 중앙대 교수(가상융합대학 학장/한국게임학회 회장)는 ‘김남국 + 알파’의 코인 게이트를, ‘돈 획득 게임’(P2E) 업계가 여의도 정치권에 벌인 조직적 로비의 산물이라고 추론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손], 또는 [계·정 복합체](게임업계와 정치권의 유착)는 실제하는가? 검찰은 이 질문을 예리하게 던져 쫓아야 한다.

것은 FIU 감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핵심은 ‘현금인출을 통한 자금세탁’이 유력하다고 시스템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남국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가? 왜? 무엇을 꺼려서?

3 이재명은 왜 김남국을 싸고드나?

대선 당시 게임 공약담당 관련, 이재명 측은 위정현 교수였고, 윤석열 대통령측은 하태경의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엄청난 로비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돈 획득 게임’ 합법화에 대해선 이재명만 호의적 발언을 했다.

이재명은 그런 P2E 합법화에 앞장선 김남국을 왜 칼같이 끊어버리지 않고 망설이는가? 그는 왜 그러냐? 무엇이 걸려서? 김남국을 윤리위에 게소했다지만, 의원직 제명엔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안 되게 하겠다는 뜻이다. 왜?

4 김남국은 왜 코인 조개기 인출 했나?

김남국은 무엇을 위해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전후와

6월 지방선거 직전에, 100억 원어치 코인을 조개기 인출 했는가? 어디다 쓰려고? 더군다나 선거철에.

■ 김남국은 상위 0.01% 전주(錢主)

이런 의문점들의 최종 결론이 나올 시점은 아직 아니다. 조귀동 금융 전문 작가(전직 경제부기자는)는 “김남국은 코인 판의 선량한 투자자가 아니라 거대 전주이자 타짜”라고 평했다. 반면에 운동권 정계와 그들의 열성 팬들은 “게는 짓어도 우리는 간다”란 식이다. “우리는 도덕주의일 필요 없다” “욕망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돈을 던져라” 어찌고, 손톱만큼의 자괴감도, 수치심도, 가책도, 민심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투다. 무엇이 저들을 그토록 두껍게 만들었나?

■ 김남국 옹호하는 운동권의 변변함

운동권의 안하무인 이면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건 거창한 투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무오류(無誤謬)라는, 터무니없는 선민(選民)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NL 운동권은 하루 시절부터 반지성적이었다. 원서를 읽을 만큼 읽었다. 인문 교양 세례를 받았다. 금기(禁忌)의식

이 있다.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 시험을 엄격히 치렀나? 북한방송 받아 써 돌려본 것밖에, 더 있나?

이런 내면적 피폐(疲弊)를 안은 채, 그들은 각계각층의 주도권을 잡았다. 정권도 잡았다. 그러곤 급속히 비속(卑俗)화했다. 정의와 도덕을 내세우던 운동권이 정의와 도덕을 잃었다. 몰락이다. 어찌할 것인가?

■ 자유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늦었지만, 좌파적일지라도 그들과는 다른 내부자들이 들고 일어선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공유하는 민주적 좌파(democratic left)로 가야 한다. 조국·이재명·송영길·김남국. 그들의 유통기간은 지났다. 자유인들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합리적 진보와는 공존한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 문화 교류부 + 주사파의 전복 활동과 국정 농단]은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교수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5월 19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31 Advertisement-type Article Series 광고형 기사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